

제14대 KOICA 이사장 취임사

-일시: 2023.7.10.[월], 15:00-15:30 / 장소: KOICA 대강당

<머리말>

안녕하십니까,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 근무하며 동고동락하게 될 장원삼입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 취임식에 참석하신

원도연 외교부 개발협력국장님과 내외 귀빈 여러분,

지난 1월 이후 기관장 공백 상태에서

비상경영체제를 원만히 이끌어주신 이윤영 이사를 비롯한

경영진과 코이카 직원 모두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세계 각처에서 열악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소임을 다하고 있는

해외사무소의 직원 및 단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각별한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저는 원조를 받는 국가의 외교관으로 시작해서 원조를 주는

국가로 외교관으로 저의 경력을 마무리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출범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코이카의 성장과정을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스리랑카 대사 근무시, 현지에서 주재국 국민들에게 대사보다
코이카 소장이 더 인기가 높고 더 가까이 하고 싶은 인사이며,
어디를 방문해도 대다수 코이카 단원들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듣고 보면서
저는 코이카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며 또한
국위선양에 얼마나 많은 기여를 하는 지
현장에서 몸으로 실감하였습니다.

이런 경험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코이카가 한류에 앞서
국가이미지 제고에 기여한 원조(元祖) K브랜드이며,
최빈국에서 원조공여국으로 환골탈태한
한국의 변화된 국제적 위상을 상징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점에서 여러분 모두 코이카 직원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1991년 174억원의 예산으로 시작한 코이카는
현재 47국 48개 사무소에서
약 1조 3500억원 규모의 사업을 수행하는
무상 개발협력 대표기관으로 성장하였으며,
대내외적 영향력도 매우 높아졌습니다.

이제는 지난 32년간 이룩한 성과를 발전적으로 계승하고,
더 나아가 급변하는 국제환경 속에서
우리 대외정책 목표에 기여하는
코이카로 한 단계 더욱 도약하여야 할 때입니다.

이러한 중차대한 시기에
코이카의 이사장으로 취임하게 되어
개인적으로 기쁘고 영광스러우면서도,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대내외 환경〉

임직원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를 둘러싼 국제환경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복합위기 또는 다중위기라는 말로 대변되듯이,
분쟁과 난민의 증가, 식량·에너지·보건·기후위기 등은
그간 인류가 이룩한 지속가능발전(SDGs) 성과를 퇴보시키고,
개도국의 경제·사회적 여건을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폭증하는 개발수요와 복잡화된 개발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사회에서는 ODA 확대와 더불어
민간재원 동원을 위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한편으로, 미국·일본 등의 선진 공여국들은
인·태 지역 등의 국제질서 재편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ODA를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을 지향하는 우리 정부도
「부산 이니셔티브」, 「인도-태평양 전략」 등을 통해
대외정책 추진의 핵심 수단으로 개발협력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면서,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 외교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협력, 그리고
보건, 그린, 디지털 분야의 ODA 확대 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내 ODA 생태계적인 측면에서는
고착화되고 있는 원조의 분절화 문제 타개,
사업수행에 있어서의 민간의 참여,
혁신적 사업수행, 글로벌파트너십 등에 대한
다양한 요구들이 증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영기조〉

이같이 급변하는 대내외적 환경 하에서
코이카는 현재의 위치에 안주하지 않고,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고,
국제사회에서 개발협력을 선도하는 기관으로
발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사장으로 취임하면서
그간의 긍정적인 성과는 계승하고,
부족하거나 미비한 부분은 보완·개선해 나간다는 기본방침하에
지속적인 혁신을 위한 경영기조로 3가지를 강조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사업혁신으로서의 미래과제 설정입니다.
국제 논의 동향 및 정부의 정책 방향에 부합하면서,
코이카의 개발협력 전문성 및 영향력을 강화할 수 있는
미래과제를 발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미래과제들의 후보로는

먼저, 우크라이나를 비롯한 분쟁·취약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면서,
인도적지원-개발-평화가 연계(HDP Nexus)될 수 있도록
인도적 지원사업을 정비하고 체계화하는 것,

그리고 그린·디지털 ODA 추진역량을 강화하고,
ODA와 비ODA의 융합을 통한 시너지를 구축하고
민간 자원 동원을 위한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것,

아울러, 미국, 일본, EU와 같이 자유·평화·법치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신흥 공여국과의 삼각협력 등을 통해
한국의 고유한 발전사적 경험을 공유하고,
선진-신흥 공여국의 가교역할을 수행하는 것,

그 외, 기관의 시그니처 사업을 발굴하고 주요사업을 브랜딩하여,
한국 원조의 가시성 및 홍보를 강화하는 것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경영기조는, 직원 전문성 강화와 조직문화 혁신입니다.

해외공여기관, 국제기구, 시민사회 단체 등
다양한 파트너와의 인사교류 등을 적극 추진하고,
직원 교육훈련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전문성 제고 방안을 모색해 나가고자 합니다.

조직문화 측면에서는,
상향식 조직문화 개선 TF 활동을 통해 금년 상반기에 도출된
조직문화 실천가치*와 12대 실행과제를 발전적으로 계승하고,
직원들의 자율성과 창의를 존중하며
상하좌우간 소통이 원활한 조직문화를 조성하여,
직원들의 자긍심과 사기를 제고하여 나가겠습니다.

**상호존중, 책무성, 청렴준법, 공정, 탁월성*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업무 효율화를 통한 경영혁신입니다.

늘어나는 과제와 예산을 감당하고
사업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한정된 자원의 최적화된 배분을 통해
성과집중형 조직을 구현하는데
우리 모두의 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업무 프로세스 개선, 디지털 전환 등을 통해
업무의 절대적인 양을 줄이는 한편,
이를 통해 확보된 시간과 인력을
핵심사업과 미래과제에 재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제가 오늘 언급한 혁신을 위한 경영 기조는
저 혼자 이루어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직원 여러분들 모두와 비전을 공유하며,
함께 협력하여 달성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임직원 여러분들과의 소통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경영진, 부서장들뿐 아니라,
실무 직원들과 현장 사무소의 목소리도 귀담아 들겠습니다.

튼튼한 방식의 일방통행식 혁신이 아니라
코이카 구성원 모두의 중지를 모으는
공감대에 기초한 혁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직원들의 대표인 노동조합과도
상생발전을 목표로 적극 소통하겠습니다.

얼마 전 극소수 직원의 일탈로 인해
지난 30여 년간 쌓아온 코이카의 이미지가 실추되고 대다수
무고한 직원들의 사기에 영향을 미친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지만 이번의 뼈아픈 경험을 교훈 삼아
다시는 여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조직차원의 자성과 함께
조직쇄신을 위해 모두의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어두운 그림자는 떨쳐 버리고
우리 모두 심기일전하여
상식과 공정이 구현되는 코이카,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선도적 개발협력기관 코이카로
도약하도록 분발합시다.

저 역시 분골쇄신의 각오로 임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